콘크리트 도심·비좁은 배수시설…1시간 폭우에도 물난리

광주 도풀이 침수피해 왜?

'불투수면적' 비율 전국 3번째

하수관 단면 넓히기 공사

천문학적 예산에 엄두도 못내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광주시 물난리'의 원인중 하나는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면적'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일부 하수관 공사마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수면적이 넓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그릇처럼 빗물을 모두 받아내 향후 이상기후에 따른 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도시철도 2호선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뤄졌던 남구 백운광장 일대 하수관 위치를 인근의 푸른길공원으로 우회해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건립을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하면서 덩달아 백운광장 일대 하수관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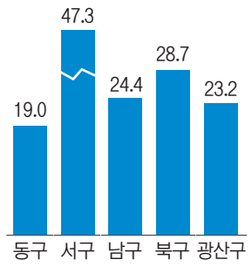
◇해마다 침수 피해 왜?=광주지역 상습 침수 지역은 ▲내남동 남계마을 ▲서석동 문화전당 ▲백운로터리 ▲무등시장 광천동 기아자동차 ▲화정동 서석고 ▲운암동 벽산아파트 ▲운암동 운암시장 ▲신안교 ▲오치동 한전교차로 ▲송정동 광성이발관 ▲비아동 비아시장 ▲운남동 극락강역 ▲어룡동 소촌산단 한전 ▲우산동 송광아파트 ▲우산동 자동화설비공고 등 16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광주 전역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나고 있다. 매년 비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폭우의 빈도가 늘었고 해마다 광주시의 불투수면적이 늘고 있는 탓이다.

흔히 비가 내리면 '강우→증발→침투→유출'의 과정을 거쳐 빗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광주 도심에서는 침투 과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지대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불투수면적 비율 〈단위:%〉

서울	54.37
부산	30.34
광주	26.60
대구	23.24
인천	22.30
대전	21.99
울산	17.22
세종	12.41



현재 광주시 전역(498.3㎢)의 불투수면적은 26.6%이며 이는 서울 54.37%, 부산 30.3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꾸준한 나무심기를 한 대구는 불투수면적이 23.24%이었고, 인천 22.30%, 대전 21.99%, 울산 17.22%, 세종 12.41%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광주지역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구(47.3%)의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고 북구(28.7%), 남구(24.4%), 광산(23.2%), 동구(19.0%) 순으로 나타났다.

◇수조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 확보 관건=현재 광주 대부분 지역은 10년 빈도의 폭우(54㎜)에 대비해 배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년 빈도의 폭우(71㎜)에 대비한 배수 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예산 마련이 관건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3일 침수피해 대책 회의를 통해 최근 피해 지역 82곳을 전수조사하고 하수관 단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하수 수선유지비 예산을 34억원에서 44억원을 늘려 일제히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남구 봉선동 일대의 빗물을 신속하게 빼내야 할 하수관(백운광장~봉선동·505m) 공사와 상습 침수지구인 대남대로 일대의 하수관로 공사가 도시철도 2호선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인근 도시철도 2호선 예정구간과 겹쳐 전면 중단되면서 침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광주시는 인근의 푸른길공원 백양로로 위치를 옮겨 하수관 공사를 하는 방안을 3일 논의했다.

도심의 침수 피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연재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지름 5.5~10m, 총 길이가 4.7㎞에 이르는 빗물터널(신월 빗물 배수저류시설)을 뚫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빗물터널은 13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하수관 단면 확대 예산도 천문학적이어서 광주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마련을 통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올 여름 역대급 폭염…평균기온·열대야 등 모든 기록 갈아치워

온열 질환자 400여명 발생

축산·어류 수백만마리 폐사

올여름(6~8월) 광주·전남을 덮친 역대급 폭염이 더위와 관련한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웠다. 온열질환자만 400여명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도 극심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8월 여름철 기상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6~8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5.8도로 전국적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30.2도)도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평균 최저기온(22.3도)은 역대 2위에 올랐다.

광주·전남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각각 26일과 25.7일로, 평년(5.9일, 8.5일)보다 많아 모두 1973년 이래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여름철 폭염일수는 43일(평년 11.5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열대야일수는 30일(평년 12.3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일일 극값 경신도 잇따라 8월 1일 진도(첨찰산) 35.6도, 2일 영광군 37.6도, 15일 광주 38.5도·흑산도 34.9도 등 낮 최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강수량은 역대 최저치였다. 6~8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522.3㎜로 평년(634.6~874.6㎜)보다 적었다.

특히 7월 강수량(80.5㎜)은 역대 최소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적었으며, 강수일수 또한 짧은 장마 탓에 최소 부문 1위에 올랐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도 6월 26일에 시작해 7월 9일(14일)에 종료되면서 장마 기간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짧았다.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역대급을 기록한 원인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발달 등을 지목했다.

폭염이 오랫동안 강하게 지속함에 따라 피해도 속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올여름 4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6명이 숨졌다. 가축피해는 579농가에서 97만1000마리의 닭·오리·돼지 등이 폐사해 26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류피해는 85곳의 양식어가 405만8000마리가 폐사해 33억40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농작물은 전남 19개 시·군에서 고추, 단감, 인삼 등 426.3ha가 고사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차기대권주자 1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文대통령 지지율 55.2%로 최저치…3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과 관련해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8·30 개각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0.8%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8.0%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이 업체 주간 집계를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p 내린 55.2%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9%p 오른 40.0%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선을 기록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에서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보수층 지지율은 전주보다 7.8%p 떨어진 23.4%로 집계됐다.

진보층 지지율은 3.7%p 오른 81.4%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도 나왔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 시장은 12.1%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4%로 뒤를 이으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유 전 공동대표가 1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11.9%),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7.8%),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원희룡 제주지사(5.8%)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